

초등교원양성 및 임용제도에 대한 교대생들의 인식고찰: 서울교대생들을 중심으로*

홍선호, 전윤주, 김성수, Catherine Gentry**

차 례

1. 서론
2.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원 양성체제
3. 한국의 초등교원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가능한 대안
4. 한국 초등교원 양성제도에 대한 교대생
들의 인식과 방향
5. 결론

1. 서론

어느 나라나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은 매우 큰 국가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양성제도의 성립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 할 것이다. 대부분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교원양성제도는 공교육제도의 성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선진국들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원양성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교원양성제도가 갖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려해 볼 것이다. 특히 초등교원양성기관인 서울교육대학교의 학부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의 만족도와 임용제도에 대한 생각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해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초등교원양성체제의 변화는 어떤 방향인지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 1 저자: 홍선호 (서울교육대학교), 공동저자: 전윤주 (에섹스대학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Catherine Gentry (에섹스대학교)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원 양성체제

1) 영국 교원양성제도

영국에서는 1839년에 중앙교육행정기구로서 추밀원 교육위원회가 발족하였고, 1846년에는 교원견습생제도·여왕장학제도·교원면허제도의 3대 제도로 이루어지는 교원양성소제도가 수립되었다. 이후 교육위원회의 공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속에서 교원양성제도가 활발하게 발전하였다(정현선, 2003; 정희경, 2005).

현재 영국의 공립학교(Maintained)나 비공립 특수학교 (Non-Maintained Special School)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자격수료증(Qualified Teacher Status)을 취득해야 한다. 영국은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3년제이고 1년이 3학기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선 우선 사범대학(training college)이나 종합대학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교육학 학사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기초교원양성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3~4년간의 정규과정(Full time)에 해당하는 학부 과정을 완전히 끝내고, 부가적 능력시험(Skills Tests(numeracy, literacy, and ICT)) 같은 교원자격수료증의 기준이 되는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시험 통과하면, 교육학 학사학위와 함께 교원자격수료증을 동시에 수여받게 되며 신규교사(Newly Qualified Teacher)로서 초,중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원자격수료증의 자격이 수여되는 문학사와 이학사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초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3~4년간의 정규과정(Full time)에 해당하는 학부 과정을 수료한 경우 교원자격수료증을 동시에 수여받게 된다. 대학원 교육과정도 앞서 언급한 교육학 학사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수료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부가적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부여 받는다. 현행법상 부가적 능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정규교사나 신임정규교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비정규교사(unqualified teacher)로 고용이 가능하다.

교원자격수료증을 수여받은 교사들은 신임정규교사로 연수기간(Induction Period) 1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연수(Induction)는 시립대학(City Technology Colleges)과 사립학교, 식스 폼 칼리지(Sixth Form Colleges), 시립아카데미(City Academy)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책임 교사의 지도 아래 직접 교수, 숙련된 교사의 교수방법 관찰, 학기별 교수 결과 검토 등을 받으며 진행되며 이때 신임 교사는 보통 학교 시간표의 90% 이상을 교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지정되어 있다. 책임교사가 신임교사의 합격 혹은 불합격 여부를 관련기관(Las, ISC)에 통보하고, 기관이 최종결정을 내려 일반교육위원회(GTC)에 연수 결과를 알리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잉글랜드일반교육위원회(General Teaching Council for England(GTCE))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연수기간(Induction Period)은 완료 전까지 신임정규교사 상태로 유지되며 불합격 시에는 교사자격수료증을 소지했음지라도 자격있는 교사로서 채용이 제한되어 공립학교에서 고용될 수 없다. 영국의 경우는 교원임용을 위한 특별한 시험은 없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빈자리가 있는 학교에 개인적으로 지원한다. 대부분 공립학교 교사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지방교육청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 데는 교원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근무조건이 좋아 공립학교 교사경력자, 대학교수 또는 강사 경력자, 석.박사 소지자들도 다수 지원하고 있다(박남기 2002).

2) 프랑스 교원양성제도

프랑스는 대혁명 시기에 의회에 수많은 공교육계획이 제안되었고, 그 중에는 교원양성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라카날(J. Lacanal)이 제안한 '사범학교설치법'은 계획적인 교원양성기관의 설치가 공교육제도 수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서 파리 사범학교가 설립되었고, 추후에 고도의 연구원 완성기관으로 성장 변화하였다. 나폴레옹 제정

기에는 고등사범학교가 설치됨과 동시에, 초등사범학교의 규정도 설정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쿠생(V. Cousin)의 '프러시아 교육보고서'가 직접적인 자극이 되어, 1883년에 '기조교육법'이 규정됨으로써 프랑스의 사범학교는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전효선, 2002; 한지혜, 2002).

프랑스 교원 교육체제는 국립형, 교원 교육 통합형, 일반종합대학에 분리된 교육종합대학형, 대학원 프로그램형, 개방형과 폐쇄형 혼합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개방형인 이유는 교원임용고사 응시 자격이 교원교육기관 졸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이고, 폐쇄형인 이유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임용고사 합격 후에 교육종합대학원인 IUFM(Institute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îtres) 2년차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0년을 기점으로 교원 교육체제에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즉, 1990년 이전에는 교사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준비교육을 담당하던 사범학교(Ecoles Normales d'Institutaires)를 비롯하여, 직업고등학교 교사 교육을 담당한 국립도제사범학교(Ecoles Normales Nationales d'Apprentissage), 기술고등학교 교사 교육을 담당한 기술교사 교육센터(Centres de Formation des Professeurs de l'Enseignement Technique) 그리고 각 지방에 설치되어 중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교사 교육을 담당하던 지방교사 교육센터(Centres Pédagogiques Régionaux) 등이 별도로 있었다. 그러다가 '1989년 교육법'(La Loi d'Orientation sur l'Education)의 IUFM 설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교원 교육기관을 통폐합하여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 교원 교육기관인 IUFM에서 유치원 교사부터 고등교육기관 교수요원까지의 모든 학교 수준의 교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IUFM은 프랑스 전역의 각 교육구별로 설치된 국립 교원 교육기관으로 현재 31개가 있다. IUFM의 임무는 이론과 실제를 연결한 고도의 전문적 교사 훈련, 각종 교원임용고사 준비교육, 사명감 있는 교원 교육, 교직 진출에 대한 안내와 지도, 교원의 계속 교육 및 교육 연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IUFM 체제하에서는 교양 및 교과 영역 분야는 대학 등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전문 교사 교육 및 훈련은 IUFM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원 교육 기간은 학부에서의 3년 이상의 교육과 IUFM에서의 2년 교육을 포함하여 최소 5년이다.

프랑스에서 교직을 희망할 경우,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증)를 취득한 후 교양학부(DEUG)에서 2년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 학사학위과정(Licence)을 거쳐 교원선발고사 준비를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IUFM에서의 준비, 원격교육을 통한 개인적 준비, 대학원 또는 고등사범학교(ENS)에서의 준비가 있다. 개인적이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IUFM이나 대학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국립원격교육센터(CNED)나 콜레주 세비네(Collège Sévigné)를 통해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한 후에도 모든 교직 희망자는 실습과 현장 연수 중심의 교원임용고사 2년 차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비록 국가가 관장하는 일원화된 기관이지만 지역마다 임용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IUFM 교육과정 및 교과는 조금씩 다르다. 학생들은 IUFM 등록시 자신이 원하는 교원임용고사 및 교과 과목을 밝혀야 한다. IUFM은 학구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원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IUFM의 경쟁률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프랑스가 IUFM와 같은 통합된 교원 교육체제를 갖춘 이유는 교원 준비교육, 선발·임용의 제도를 국가의 책임 아래 균등하게 보장하고, 엄정한 질적·양적 관리를 통해 교원 자격을 강화하여 교직의 전문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처우나 근무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교원 준비 기간만 연장시키면서 교원 희망자들의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우수한 학생이 교원 교육 프로그램을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3) 독일 교원양성제도

독일의 경우는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Friedrich II)이 1763년에 일반 지방 학사통칙을 제정하고, 장차 교사가 되는 자는 국립사범학교에서 일정기간 재학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그 후 1800년에 페스탈로치의 교육이론을 도입하는 한편, 국민교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그 일환으로서 교원양성제도의 정비·충실을 꾀하였다. 그 결과 사범학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Chou, 1999; Noha 1986).

전통적인 독일에서는 초등교사는 주로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사는 종합대학 교에서 양성되었다. 1950년대에 초등교사양성을 위해 거의 모든 주에 독자적으로 교육대학(Paedagogische Hochschule)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교사교육 전통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함께 교사양성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1969년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함부르크 대학교(Universitaet Hamburg) 교육학과에 편입되어 종합대학 안에 통합되었고 1973년 브레멘에서 교육대학이 브레멘 대학교(Universitaet Bremen)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등 전국적으로 여러 주에서 교육대학을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거나 단과대학으로 재편성하였다. 교사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오히려 교사자격을 갖춘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교육대학은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현재는 1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교육대학과 종합대학과의 전통적인 구별을 없애고 통합하였다.

독일의 교사교육은 공공의 학교 교사로서 스스로 교육목적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대학교육(Studium)과 준비과정(Vorbereitungsdienst)로 구분한다. 대학교육은 교사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학과 전공학과로 구성되며, 교수법과 실습은 두 영역 모두에 포함된다. 준비과정은 학문적인 기초 위에 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준비기간에는 실제적인 수업운영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간 내에 학생은 한 학교를 선택하여야 하며, 제2차 국가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독일의 교사교육 과정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 즉 초등학교 교사의 양성교육과정과 중등학교(김나지움, 직업학교 등),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양성 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 교사양성은 대학에서의 3~4년 이상의 이론교육과 2년간의 현장실습의 총 5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등학교 교사양성은 대학에서 4년 이상의 이론교육과 2년간의 현장실습 등 총 6년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사가 5~6년 만에 양성과정을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느 주이든지 대학에서의 이론 교육을 마치게 되면, 제1차 국가시험을 보아 합격자에 한하여 2년간의 현장실습을 수료하게 하고, 제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차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2년간의 실습과정에서는 학급 수업(주당13시간)과 세미나 참석 등으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교육학, 전공분야, 실습분야의 학습량의 비율은 1:2:1이다.

초등교육 담당교사와 중등교육담당교사의 양성과정은 최소 수학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초등학교와 보통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중등 1단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학기 내지 8학기의 최소이수기간을 거쳐야 하며, 학습내용은 교육학, 사회과학, 그리고 둘 또는 그 이상의 학과에 대한 전공과 교수법 등이다. 실업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따로 두고 있는 주 (바덴-뷔르템 베르크, 바이에른, 니더작센,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도 있으나 대체로 중등교사 양성과정(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나 초등 및 보통학교의 양성과정(헤센)과 통합운영하고 있다.

독일 교원양성기관 입학자격을 보면, 중등학교 상급 과정을 마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누구나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원양성대학 입학자격은 정상적인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비투어 시험에 합격한 자이고 이 경우 졸업연한은 없다. 대학의 졸업평가는 국가시험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학자중 20~30%가 대학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있으며, 수업료와 등록금은 면제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문내용은 주와 대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육학과 인접학문, 교수법 그리고 10주간의 교육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3년의 초등, 중등 교육 후에 3~4년의 대학교육을 받고, 10주간의 교육실습과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수습과정을 거치기 전에 제 1차 교원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수습과정을 거친 후에도 다시 제 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2차 교원시험 불합격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자는 교사자격증을 받게 되고 정교사로 임명된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는 물론이고, 2차에 걸친 국가고시와 2년 6개월 내지 3년간의 수습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임용될 수 있다. 그만큼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정영근 2004, 2005).

3. 한국 초등교원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가능한 대안

앞서 유럽 주요 3개국의 교원양성제도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학수준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을 목표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교원양성제도 또한 1945년 해방직후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렀던 사범학교가 1948년부터 1970년 사이에 교육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으로 정비가 되면서 중등과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구체적인 제도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는 초등교사 양성에 있어 사범학교가 2년제의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이후에도 우수교원의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해 1981년 2월 교육법이 개정되었고, 1985년에 교육대학은 4년제로 개편되었다. 1978년에는 초등교원 과잉 수급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16개 교육대학을 11개 교로 축소 조정하였고 대신에 학과별 정원을 증가시켰다. 1980년대의 교원양성기관은 4년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그리고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에 설치되는 교직과정이었는데, 1984년 3월 15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공포로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가 1985년 3월 6일 개교하였다. 초등교사 자격증의 경우는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 그리고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는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부여된다.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에서 따라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과 강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사교육은 외형적인 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내적인 충실의 문제와 이에 대한 방법과 내용면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 교육열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우수한 교사 양성이 교사교육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호응할 수 있는 교직원 확립과 전문직으로서 임하여야 할 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직전 및 현직교육에 있어 책임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풀이 되고 있다(박남기 1997a, 1997b).

최근 한국 초등교원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과잉 교사 수급과 임용경쟁

의 심화이다. 높아진 경쟁률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임용시험에 더 시간을 쏟게 하고 있다. 이는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들을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낳게 하고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행 교원양성제도에 많은 불만을 갖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안 또한 시급한 시점이다 (박남기, 1999; 박인현 2001).

더욱이 최근에는 국립대의 구조조정 및 대학법인화 계획안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에 의해 교육대학교가 인근 국립종합대학교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가 제주대학교에 통합되면서 이러한 교육대학교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박남기 (2002)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대학교와 국립종합대학교와의 통합이 과연 우수한 교원양성의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1990년부터 교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 졸업 후에 교육종합대학원인 IUFM(Institute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itres)에서 2년차 교육을 받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교육대학교 체제를 이러한 물리적인 통합보다 장점을 가진 '한국형 초등교원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교육대학교의 강점을 살리면서 초등교사 수요 감소, 초등교사의 교과 전문성 강화, 유초중등 교원 양성 연계, 초등교직 입직 기회 제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초등교원양성 프로그램을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전국 10개 교육대학교를 1개의 한국교육종합대학교로 통합하고 각 지역에 10개의 캠퍼스를 두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교원양성체제의 당사자인 교대생들이 현행 임용제도와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한 유럽 3개국의 양성체제에 근거한 제도적 방향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4. 한국 초등교원 양성제도에 대한 교대생들의 인식과 방향

본 설문조사는 서울교육대학교 학부생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남학생은 30명, 여학생은 95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에 대한 내용은 현행 초등교원 양성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및 교사 직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향하는 교원양성제도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 초등교원 양성제도에 관한 만족도

우선 서울교육대학교 학부생들은 “현행 초등 교원 양성 제도(교육대학교 졸업 후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 임용)에 관한 만족도는?”이라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만족에 비해 불만족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지금의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현행 초등교원양성제도에 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26	32	52	15	0	125
%	20.8%	25.6%	41.6%	12.0%	0.0%	100.0%

현행 초등교원 양성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현행 초등교원양성제도에 관한 남녀학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남	빈도	7	7	13	3	0	30
	%	23.3%	23.3%	43.3%	10.0%	0.0%	100.0%
여	빈도	19	25	39	12	0	95
	%	20.0%	26.3%	41.1%	12.6%	0.0%	100.0%

학생들의 현행 초등교원양성제도에 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남녀학생 모두 비슷하게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등교원양성제도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표 3> 현행 초등교원양성제도에 대하여 불만인 이유

순위	불만이유	학생수
1	암기 위주의 시험, 교사의 인성 측정 불가능	10
2	높은 경쟁률, 낮은 합격률, 지나친 경쟁	6
3	임용 시험 위주로 돌아가는 교육과정, 교사로서의 자질 배양에 역효과	8
4	교육대학의 특수성 인정하여 전원 임용 필요	8
5	교대 교육과정 구조와 임용시험 간의 괴리,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 필요	2
6	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의문	1
7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함	2
8	시험제도가 안정적이지 않음, 자주 바뀜, 인원이 너무 유동적임	3
9	지역가산점제의 불합리성	2
10	초등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2
11	운이 따르는 시험	2

12	또 시험을 쳐야 하는 부담감	1
13	교육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기타 불만 (교과목 간의 연계성 부족, 내용의 깊이 부족, 교육과정 내용 선정의 편파적 구성)	1
14	현장에서의 인턴과정이 필요함	1
15	임용시험이 의사고시처럼 80-90% 합격률이 나오는 통과외례 정도가 되어야 함	1
	합계	48

불만인 가장 큰 이유로는 암기 위주의 시험, 교사의 인성 측정 불가능, 높은 경쟁률에 비해 낮은 합격률에 따른 지나친 경쟁, 임용 시험 위주로 돌아가는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사로서의 자질 배양에 역효과, 교육대학의 특수성 인정한 전원 임용 필요성 등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교육대학교 입학 후에 교육자 이외의 다른 진로에 관한 고민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4> 교육대학 입학 후 진로에 대한 고민

	많이 고민함	조금 고민함	잘 모르겠음	고민 해 본적이 없음	합계
빈도	34	44	23	24	125
%	27.2%	35.2%	18.4%	19.2%	100.0%

학생들 57.2%가 고민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고민 해 본적이 없는 학생은 19.2%에 불과 하였다. 이는 교육대학교 학생들 또한 고등학교 때의 내신과 수능성적에 따라 대학을 결정하다보니, 미처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직을 선택한 것이 추후 대학생활 중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교육대학 입학 후 남녀 학생별 진로에 대한 고민

		많이 고민함	조금 고민함	잘 모르겠음	고민 해 본적이 없음	합계
남	빈도	13	8	5	4	30
	%	43.3%	26.7%	16.7%	13.3%	100.0%
여	빈도	21	36	18	20	95
	%	22.1%	37.9%	18.9%	21.1%	100.0%

남녀 학생 모두 고민한 학생들의 숫자가 고민 해 본적이 없는 학생 수보다 많았지만, 성별로 진로에 대한 고민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많이 고민 함'에 해당하는 학생수가 43.3%에 이르렀다. 교직에 대한 진로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그 수가 높았다.

이에 따른 다른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표 6> 교육대학 입학 후 생각 해 본 다른 진로

순위	기타 진로	학생수
1	행정고시	10
2	공무원시험 (교육행정직 등)	9
3	방송, 언론	7
4	타대학/ 타대학 대학원 타전공	7
5	교수	4
6	회사원 (대기업 등)	3
7	공무원시험	3
9	법조인	3
10	연구원	2
11	아동심리상담가, 상담심리전문가	2
12	음악	2

13	기타	13
	합계	63

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들인 만큼 행정고시를 통한 고급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시험을 통한 행정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이나 언론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과 다른 전공을 공부해 보고 싶은 학생의 수도 각각 7명씩 의견을 주었다. 설문에 응한 125명의 학생 중에 절반인 63명의 학생들이 초등교사와의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생각 해 본 직업을 언급했다. 이 부분은 현행 초등교원양성제도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2) 초등교원 양성제도 대한 의견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초등교사 직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수가 전문직이라는 생각하고 있었고, 남녀 성별에 따라선 남학생보단 여학생이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초등교사 직업의 전문성

		전문직 아님	보통	전문직임	합계
남	빈도	4	8	18	30
	%	13.3%	26.7%	60.0%	100.0%
여	빈도	3	20	72	95
	%	3.2%	21.1%	75.8%	100.0%

그러나 남학생들의 경우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13.3%였고, 26.7%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여, 적지 않은 수가 완전하게 초등교사로서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교사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 초등학교도 저학년, 고학년의 특성이 너무나 달라서 나뉘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의 본분에 충실하기 어려운 것 같다.
- 전문적 지식의 부재
- 학부에서 딱히 전문가양성과정을 밟는 것 같지 않다
-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 전문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전과목 모두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
- 교육과정이 문제라고 봄. 좀 더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필요

전문직이라는 직업 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 있어 대체인력의 가능성이 낮고, 전문 직업으로서의 연수과정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최근 들어 초등교사의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은 중등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 인력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등교사에 비해 초등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교과 교육과정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의 언어수준, 인지능력에 맞게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대체인력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유럽 3개국의 교원양성체제를 토대로 한국의 현행 양성체제와 임용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와 더불어 현행 초등교원 양성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보았다. 설문지에 제시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교원양성에 있어 선발에 중심이 더 있느냐 양성에 더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 ‘선발중심형’과 ‘양성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 하나는 교원양성대학을 완전히 종합대학화하면서, 교육대학교에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초등교육전문대학원을 두는 ‘개방형’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개방형의 경우, 교육대학교의 학부는 일반 종합대학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반종합대학의 학부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 후에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교에 있는 초등교육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2년의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 임용시험을 보고 교사가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교원 교육 개방과 교직 개방과의 관계이다. 교원 교

육이 개방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교직에 입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직이 개방된 것이 아니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입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직이 개방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선 초등교육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완전한 교직의 개방으로 보긴 힘들다. 우선 학생들에게 제시된 아래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중에 ①, ②번은 임용시험이 중심된 현행제도에 가까운 선발중심형이고, ③번과 ④번은 독일의 교원양성제도와 프랑스의 교원양성제도를 응용한 것으로 양성중심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⑤번은 지금까지 논한 대학원중심의 개방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① 교육대학교 4년제 + 현행(1,2차)임용시험 제도
- ② 교육대학교 6년제(학부 4년 + 대학원 석사 2년) + 현행(1,2차)임용시험 제도
- ③ 교육대학교 4년 + 임용선발고사 (1회) + 초등학교 현장 수습 교사제도 2년
- ④ 교육대학교 4년 + 임용선발고사 (1회) + 교원연수원 수습 교사제도 2년
- ⑤ 일반대학교 4년 + 초등교육전문대학원 2년 + 현행(1,2차)임용시험 제도

따라서 설문 분석 시, 교사임용에 있어 임용시험의 비중이 큰 ①, ②번을 '선발중심형 A,B'로 하고, 수습과 연수가 임용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③, ④번은 '양성중심형 A,B'로 하고, 초등교육전문대학원이 중심이 되는 ⑤번은 개방형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표 8> 선호하는 초등교원양성제도

	선발중심A	선발중심B	양성중심A	양성중심B	개방형	기타	합계
빈도	32	1	67	20	3	2	125
%	25.6%	0.8%	53.6%	16.0%	2.4%	1.6%	100.0%

학생들은 “초등교원 양성제도 중에 선호하는 제도는?”이라는 질문에 ‘양성중심A’형이 67명이 응답하여 53.6%로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현행 초등교원양성 및 임용제도에 관한 불만이 많았던 만큼 임용에 있어 시험을 통한 선발정보다는 현장수습교사를 2년하는 독일식 양성형 임용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랑스식 교원연수원 수습 교사제도 16%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복잡한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에 임용되는 것보다는 임용시험은 단순화하고 현장 수습 및 연수를 통해 좀 더 현장에 가까워지는 교육을 받은 후에 임용이 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표 9> 남녀별 선호하는 초등교원양성제도

		선발중심A	선발중심B	양성중심A	양성중심B	개방형	기타	합계
남	빈도	12	0	10	6	0	2	30
	%	40.0%	0.0%	33.3%	20.0%	0.0%	6.7%	100.0%
여	빈도	20	1	57	14	3	0	95
	%	21.1%	1.1%	60.0%	14.7%	3.2%	0.0%	100.0%

그러나 선호하는 초등교원양성제도에 있어 남녀별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앞서 언급한 양성형을 대다수가 선호한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수습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현행처럼 수습과정 없이 임용시험을 통해 바로 교사가 되는 선발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교직에 대한 선호도

가 여학생들에 비해 낮고,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만큼, 교원 수습과정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에 비해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대생들은 초등교육전문대학원 중심의 제도에 대해선 교육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장점 그리고 기득권을 개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설문을 통해 드러난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교육대학중심의 초등교사 양성 및 임용제도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현행 초등교원 임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 교육대학교 중심의 초등교사양성기관이 갖는 특성상 진로의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입학 후에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다.
- 초등교사 직업에 대하여 전문직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 현행 제도의 개선의 대안으로 독일식 교원양성제도에 가까운 ‘교육대학교 4년 + 임용선발고사 (1회) + 초등학교 현장 수습 교사제도 2년’의 교사양성에 좀 더 중심을 둔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위의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현행 양성제도와 임용제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교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2,3년에 한 번씩 바뀌는 임용시험제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한 행정편의주의식 교육대학교 개혁정책 방향에 있어 과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인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원양성제도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원양성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현재 한국의 초등교원양성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대안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고려해 보았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높은 교육열과 한층 높아진 교직에 대한 위상에 발맞추어 교사양성에 있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현실이다. 높아진 위상만큼 수준 높은 학생들이 교육대학교에 들어오는 만큼 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직에 관련한 진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부터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현행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현행 교원양성제도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의 결과가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행 교사양성 및 임용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이를 토대로 근래에 자주 바뀌는 초등교사임용제도와 교육대학교 개혁안들에 대하여 과연 미래의 교사들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WORKS CITED

- 박남기. “등교원 양성 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행정학연구』, 15(3), 한국교육행정학회, 88-115. 1997a.
- 박남기. 『미래교사가 바라본 초등교원양성 교육의 현주소』. 서울: 교육과학사, 1997b.
- 박남기. “초등교원 수급 정책 분석: 질 낮은 교사로 교단 채우기”, 『새교육』 (533호), 한국교육신문사, 92-97. 1999.
- 박남기. “주요국 초등교원 교육체제 비교 분석”,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21세기 교육과 교육대학교의 위상 정립 세미나 자료집』.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02.
- 박인현. “교원양성교육과 교육법”, 『교육법학연구』, 13, 32-60, 2001.
- 정영근. “독일교원 양성교육의 현황과 개혁방향”, 『한독교육학회발표 논문』, 55-74, 2004.

- 정영근. “독일교원 양성체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일반계중등교원양성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5-4, 153-176, 2005.
- 정현선.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그 실천적 함의”. 『한국언론학회 자료집』, 2003.
- 전효선. “프랑스 교원임용체제와 양성과정”, 『교육개발』, 132, 69-71, 2002.
- 정희경. “영국에서의 초중등학교 미디어교육 교과과정 연구”, 『한국언론학회 자료집』, 2005.
- 한지혜. “프랑스의 유아초등교사교육: 국가교사양성기관(IUFM)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2002년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 2002.
- Chou, Victoria. “The issue is quality: Comprehensive redesign of teacher prepar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t UIC”. ms. 2002
- Noha, Harold. “The use and abuse of comparative education”. In Altbach, Philip and Gail Kelly (eds), *New approaches to comparative education* (153-17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Abstract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udents' Perceptions
on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Teacher Cultivating
and Appointment System: From a Survey of SNUE
Students

Sun-Ho Hong, Yunju Jeon, Soungsu Kim, Catherine Gentry

In order to find a better model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system for the futur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teacher training systems of three European countries, Great Britain, Germany and France, which are known for their superior educational systems. We first discussed the overall educational systems of the three countries with regards to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educational system, the required qualities and the licence programs of the teacher and the employment system. We then touched upon the issues that have arisen in the Korean teacher training system. Based on the resources that we have considered in the three European countries, we surveyed the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or investigating to what extent they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teacher training and employment system and presenting the alternatives to it. This survey is expected to serve a basis for futur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teacher training system.

Key Words: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system, teacher training system, the licence programs of the teacher
초등교원교육제도, 교원양성제도, 교사자격증 프로그램

논문접수일: 2012.05.22

심사완료일: 2012.06.20

게재확정일: 2012.06.21

이름: 홍선호

소속: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번지

이메일: shong@snue.ac.kr

이름: 진윤주

소속: 영국 에섹스대학교 언어학과

주소: Wivenhoe Park, Colchester, Essex, CO4 3SQ, UK

이메일: yjeon@essex.ac.uk

이름: 김성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번지

이메일: onomatos@hotmail.com

이름: Catherine Gentry

소속: 영국 에섹스대학교 언어학과

주소: Wivenhoe Park, Colchester, Essex, CO4 3SQ, UK

이메일: cgentry@essex.ac.uk